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과학기술의 푸른 혁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지난 10월 27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대전 과학고에서 열린 제10차 국민공감 타운미팅에서 이 후보는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과학에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국민성공시대’ 타운미팅 열려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 대선 국면에서 과학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고 관심을 보이는 곳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라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9월초부터 열린 타운미팅에서 과학 분야가 ‘10번째’를 차지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말이다.

타운미팅이란 개방적 의사결정방식을 말하는 회의로 미국에서 지자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회의로 시작됐다. 이후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기업들이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국내에서는 선거캠프인 방편으로 도입됐다.

이날 타운미팅의 주제는 ‘과학기술이 열어가는 국민성공시대’였다. 이 후보는 “기업인은 기업, 경제를 살릴 수 있지만 과학자는 전

세계, 전 인류에 기여하는 존재”라며 과학자를 높이 평가했으나 현재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과학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관심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골프가 나오면 학생들이 골프를 배우고 축구가 등장하면 볼을 찬다”며 “과학기술이 우대받고 국가 인류를 먹여 살리는 스타과학자가 나오면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슬로건에 걸맞게 과학기술에서도 국가 간 경쟁을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으므로 우리는 한 걸음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미래를 향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기술분야에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공계 교수 연구원 120여명, 이공계 석·박사 20여명, 이공계 대학생 30여명, 기업연구소 및 벤처기업 20여명, 중고교 과학교사 10여명 등 과학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선대본부 과학기술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과학기술 타운미팅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황과 대책, 기초과학 육성, 과학교육, 응용과학 육성 등에 걸쳐 과학자 및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과 정부,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책건의 등이 전달됐다.

‘은하도시건설’이 MB캠프 3대 공약에 포함

이명박 후보 캠프가 당내 경선 때부터 내놓은 3대 공약은 747 프로젝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함께 은하도시건설 내용이 있다. 과거의 대선을 돌아볼 때 3대 공약 가운데 과학 부문이 하나로 들어간 것은 과학 공약에 대한 상당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은하도시 건설은 처음에는 가속기 건설로 시작해 지금은 국제과학기업도시로 제목이 바뀌었지만 이 공약은 기본적으로 거대과학,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운하의 청사진을 위해서 유럽에 운하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배은희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대전 과학고에서 열린 제 10차 국민공감 타운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중인 이명박 후보와 박찬모 전 포항공대 총장 민동필 국제과학기업도시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의 모습(오른쪽 부터)

시찰하러 갔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초입자가속기의 본거지인 CERN을 방문하고 나서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중이온 가속기의 설치를 포함한 과학도시의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으나 당시 과학계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중이온가속기 자체가 우리나라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닌데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거대과학이 국내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미국도 1990년 초에 초전도 초가속기(SSC) 건설을 위하여 텍사스에 수십조 원대의 예산을 들여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엄청난 규모의 땅굴만 파놓고선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장되고 말았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요즘은 가속기 건설보다 과학도시 건설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다. 국제과학기업도시의 건설이란 연구원, 지원시설 관계자, 기업인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따로 조성해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수십조 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는 아시아 최대의 기초과학연구소, 과학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밸리 등이 포함되며 대덕 R&D 특구, 천안~아산의 IT 산업단지 및 행복도시를 연계해 과학기술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 포함돼 있다.

MB캠프의 과학자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그래도 과학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라고 평가한다. 서울대 민동필 교수는 은하도시건설 공약의 핵심 주역이다. 민 교수는 “학술진흥재단에서 2년간 근무하며 국가 연구개발비 운영을 담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기초 물리에 연간 38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으나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청와대’가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선 후보 캠프에 자문역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현재 한나라당 대선캠프 미래비전위원회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거대입자 충돌 가속기

의 국제과학기업도시추진 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시장이던 시절 이공계 과학 장학생 사업을 시작하고 줄기세포 연구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결과적으로 줄기세포 파동 때문에 무산됐지만) 과학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때 상당수의 과학자들이 자문그룹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이화여대 이준승 교수가 서울시 과학 장학생 프로젝트를 맡아 이를 운영했다. 이 인연으로 이준승 교수는 현재 한나라당 대선캠프 과학기술분과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된 뒤 발족한 선거대책위원회에는 리젠 배은희 사장과 전 포항공대 총장인 박찬모 교수가 이공계인으로 합류했다.

솔직히 이명박 후보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약점 - 땅 투기나 BBK 문제와 같은 것을 보면 정직과 신의, 성실성을 최대 가치로 생각하는 일반 과학자들의 세계와는 상치되는 느낌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이는’ 과학자들이 MB캠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현장에서 과학자들이 떠들어보아야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크게 반영되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열린 타운미팅에서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관심만 가지면 잘 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오늘의 해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관심은 반갑지만 ‘관심’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현재 과학기술행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고쳐져 다음 대선 때는 좀 더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해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